

## 2023년 4월 5주(4/30-5/5) 가족공동체 나눔 교안

### 마태복음27:11-26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 1. 말씀요약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요18:38).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대인 정도로만 여겼지 악하거나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인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빌라도라고 해도 이렇게 무죄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지난밤에 꿔던 꿈 때문에 예수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19절).

그래도 결국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위협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를 대적하는 것이다!(요19:12)” 성공과 출세에 예민했던 빌라도에게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가 죽인 걸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요? 1번,종교인들, 2번,불량배들(방관자들), 3번,빌라도.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조금은 엉뚱한 질문과 답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없죠. 24-25절에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할 뿐입니다. 믹서기가 레몬을 받으면 가는 것 밖에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예수님을 보면 죽이는 것 밖에 못합니다.

지금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의, 생명, 구원, 거룩하신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할 건데요? 예수를 원하는데요?” 이런 호기(豪氣)가 거짓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바라바(바르 아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모든 인류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는 그 이름에 맞게 내 욕심, 현실, 죄, 사망 등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100이면 100번, 1000이면 1000번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과 가정, 자녀들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연약한 인간의 상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라바의 비교 대상이 되심으로 인간은 창조 시기에 있었던 에덴동산의 아담으로 다시 소환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에 선은 버리고 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죄된 상태로 자기 자신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늘 예수보다 내 현실이 우선입니다.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상태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가족옷이 되십니다(창3:21).**

우리는 이 욕심이 살아있는 한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바라바를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하거나 비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연약함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걸 늘 알고 살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바라바 옆에서 비교 대상으로 서 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버림 받으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나에게 가족옷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롬7:24)’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외침이야말로 신자 된 인간의 실존적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나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 2. 적용

우리가 늘 바라바를 선택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옷(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늘 바라바를 선택하는 내 삶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와 같은 탄식이 있나요?

#### 3.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보다 제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여기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바라바를 선택했지만, 내일은 좀 고민(탄식)하면서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나 주님의 기쁨

Teresa Muller

윤네이션스 역

F F/A B<sup>b2</sup> G<sup>7 4</sup> C<sup>7</sup> G<sup>7</sup>/F C<sup>4</sup><sub>sus</sub>

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2. 겸손히-내 마음드-림니-다 - 나의모-든 것-방으소-서-

F<sup>2</sup> B<sup>b2</sup> G<sup>7 4</sup> B<sup>b</sup>/C G<sup>7</sup>/F F

새부대 가되-게하-여 주-사- 주 님의 빛-비추-게하소-서-  
 나의 맘 깨끗-케하-여 주-사- 주 의길로-행하-게하소-서-

C F C<sup>2</sup> B<sup>b2</sup> F<sup>2</sup> B<sup>b</sup> G<sup>7 4</sup> C

내가 원-하느-한-가-거- 주 님의-기쁨이되는것-

C F C<sup>2</sup> B<sup>b2</sup> C<sup>2</sup> D<sub>m</sub> G<sup>7</sup> C<sup>4</sup><sub>sus</sub> F

내가 원-하느-한-가-거- 주 님의-기-쁨이되는것-

Copyright (C) 1984 Maranatha Praise In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박정은

A E/C# D A<sup>2</sup>/C#

주가 보이신-생명 의-길-나 주 님과-함께-

B<sub>m</sub> E A E<sup>7</sup>/B A/C#

상한 맘을 드-리며 - 주 님-앞에 - 나-가리-

D A/C# B<sub>m</sub> E<sup>7</sup> A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예수-

D A/C# B<sub>m</sub> A<sup>2</sup>/C# D E<sup>4</sup><sub>sus</sub> D/E E

나의 길이되-신 이-름-예-수-

A C<sup>#7</sup> F<sup>#</sup> A/E B<sub>m</sub> B<sub>m</sub>/A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 나를 단련하심-후-

G E<sup>7</sup> A E<sup>7</sup> D<sup>9</sup> D A/C# B<sup>7</sup> E<sup>4</sup><sub>sus</sub> E A

에-내-가-정-금-같-이-나-아-오-리-라-